

2017년 5월 27일, 구좌읍 상도리 상도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오창은(남, 1936년생, 구좌읍 상도리)

제보자2: 강기주(남, 1937년생, 구좌읍 상도리)

- 줄거리: 구좌읍 상도리와 하도리는 원래 한 마을이었는데, 하룻밤 사이에 서북풍이 바다로부터 불어와 큰 모래동산을 만들어 두 마을을 갈라놓았다. 그래서 모래동산의 위쪽을 상도, 아래쪽을 하도라고 불렀다. 이 모래동산은 길이가 1~2km 정도로 매우 크고 길었다고 한다.

[제보자1] 이제 이 바다에서 모래가 올라와가지고 하룻 저녁에 저 모래동산이 생겼는데. 게서 하도와 상도리 가운데로 이제, 이러쿵 동산이 생겨불었어. 길게. 게서 하도하고 상도하고 갈라 놔불었다고 그랬어.

[조사자] 서북풍이 불어가지고예?

[제보자1] 어. 그래서 갈라놔 분 것이 그. 이제, 그래서 상도리라는 게 벨도로 나와 잇는 거 같다고 해.

[제보자2] 상도, 돌려. 처음에 돌려라고 우리도 돌려 돌려 했는디. 도이여라고 이. 차츰차츰 그게 이 부르다 보니까 돌려로 뒀는데.

[조사자] 그니까 서북풍이 불었 딱 그냥 동산? 뜬 둔덕이 생겨분 거구나예.

[제보자1] 어. 길게 저, 저, 하도로부텀 시작했어.

[제보자2] 반석 잇는 디, 훈 일 키로 이 키로 정도 동산이 막 큰 동산이 막.

[제보자1] 아주 길게 이러쿵 생겨불었어, 하도하고 상도하고 갈라놔 불었다고, 하룻 저녁에.

[조사자] 아. 기구나예.

[제보자1] 하룻 저녁 잠을 자고 깨어보니깐 그러쿵 동산이 생겨비었다고 그래. 그래서 이제 하도하고 상도하고 이제, 이러쿵 분리가 뒀어버렸고.

- 핵심어 : 상도리, 하도리, 바다, 모래, 모래 동산, 돌려, 도이여, 반석, 큰 동산, 분리, 설촌 유래